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현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실기시험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17년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피부미용학전공

강 정 은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실기시험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배 현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피부미용학전공

강 정 은

인 준 서

강정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年 5月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논문개요

피부미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기술, 기능 인력 창출에 대한 산업 사회의 요구와 더불어 피부 미용사 국가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자격증을 취득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 사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문피부미용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점점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자격증 시험이 2012년 1월 상시시험으로 전환되면서 현장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용사(피부)국가 자격증의 취득상황 및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었다..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미용사(피부)자격증 취득한 여성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데이터코딩과 데이터 클린 과정을 거쳐, SSPS ver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20대가 54.2%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등학교졸업이 36.3%, 직업은 피부관리샵 종사자가 28.9%로 가장 높았다.

둘째, 자격증 취득실태 중 자격증 교육장소로는 미용학원에서 자격증을 준비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p<0.001$) 자격증 취득기간은 정시시험보다 상시시험의 기간이 더 길었고($p<0.01$) 또한 자격증 취득에 사용된 비용은 상시시험은 고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셋째, 자격증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정기와 상시 모두 ‘매우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자격증 취득 동기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서’가 많았고, 실기시험 난이도는 모두 평이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넷째, 감독관의 평가는 상시시험은 공정하다, 정시시험은 ‘공정하지 않다’고 나타났으며, ($p < 0.001$).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주관적 심사기준’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5시간 정도의 교육만 받은 후 채점한 방법에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실기시험에 관한 평가로는 환경과 설비에서는 대기 장소의 협소함이 불만이었고, 시간 및 장소로는 준비물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정시와 상시 모두 결과가 상이했다.

여섯째, 실기시험 개선방향으로는 실기과목 추가여부는 부정적이었으며, 만약 추가한다면 얼굴기기와 등관리를 선택했으며, 보수교육은 필요하다고 답했고, 보수교육의 내용은 서비스교육과 얼굴관리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는 시험을 합격하고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가장 직무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직무능력활용도는 모든 과목이 직무능력활용도에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정시시험 응시자들이 직무능력 활용을 더 높게 평가했다.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 시험은 정시시험에서 상시시험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특별한 응시 조건이 없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 보더니 합격률도 낮아지고, 자격증의 질이 다소 낮게 평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기술 시험에 적합한 응시 조건과 현장 실무에 기본이 되는 시험으로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피부미용업 및 미용사의 범위	4
2.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 제도	4
3. 미용사(피부)실기검정 종목	6
1) 실기과정 - 1과제	6
2) 실기과정 - 2과제	7
3) 실기과정 - 3과제	7
III. 연구방법	8
1. 연구대상자	8
2. 연구도구	8
3. 자료분석 및 방법	9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0
1. 조사대상자별 일반적 특성	10
2. 실기시험 취득실태	11
3. 실기시험 난이도 평가	14
4. 실기시험 감독에 대한 평가	15

5. 실기시험에 관한 환경 평가	17
6. 실기시험의 개선 방향	19
7. 실기시험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	21
1) 실기시험과목의 직무능력활용도(1과목)	21
2) 실기시험과목의 직무능력활용도(2과목)	22
3) 실기시험과목의 직무능력활용도(3과목)	23
8. 응시자의 직업	23
9. 경력과 자격증 유용성 관련도	24
10.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자격증 취득 실태 비교	25
11.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자격증 취득동기 및 필요성	29
12.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실기시험에 관한 평가	31
13.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감독관들에 대한 비교	32
14. 실기시험 장소에 따른 콘텐츠 평가 비교	35
15. 실기시험 장소에 따른 환경(설비 및 시설)에 관한 평가 비교	36
16.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에 대한 비교	39
17.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자 특성	41
V. 결론 및 제언	43

참고 문헌

ABSTRACT

설문지

표 목 차

<표 1> 종목별 검정현황	5
<표 2>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검정과목 -1과제	6
<표 3>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검정과목 -2과제	7
<표 4>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검정과목 -3과제	7
<표 5> 연구 표본	8
<표 6> 설문지의 구성	9
<표 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
<표 8> 실기시험 취득 연도 및 장소	12
<표 9> 실기시험 취득 실태	13
<표 10>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취득 동기	14
<표 11> 실기시험 난이도 평가	15
<표 12> 실기시험에 감독관들에 대한 평가	16
<표 13> 실기시험에 관한 환경 평가	18
<표 14> 실기시험에 관한 평가 - 시간 및 장소	19
<표 15> 실기시험 중 추가 과목	20
<표 16> 실기시험 중 보수 교육	21
<표 17>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1과목)	22
<표 18>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2과목)	22
<표 19>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3과목)	23
<표 20> 응시자의 직업에 관한 조사	24
<표 21> 경력과 자격증 유용성 관련도	25
<표 22>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자격증 취득실태 비교	28
<표 23>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자격증 취득동기 및 필요성	30

<표 24>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실기시험에 관한 평가	32
<표 25>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감독관들의 평가	34
<표 26> 실기시험장소에 따른 컨텐츠 평가	36
<표 27> 실기시험장소에 따른 환경(설비 및 시설)에 관한 평가	38
<표 28>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	40
<표 29>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자 특성	42

I. 서 론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향상하면서 미용산업(Cosmetic Business)도 발전하였다. 미용사업이라함은 화장품 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광의적 의미의 미용 서비스 산업은化妆품을 포함한 미용관련 사업을 의미한다.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2012)에 따르면 이·미용 관련 사업체수는 약 12만개, 매출액은 약 5조 6백억원이며, 이·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수는 약 3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통계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미용산업은 고 부가가치의 산업의 유망직종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유망직종으로 선두그룹을 차지해왔다.(임은화·황지영·김현정, 2013)

미용사 자격증시험은 1948년 제1회로 미용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 시행규칙에 따라 미용사는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나뉘게 되어 2008년 10월 5일 정시시험을 시작으로, 2012년 1월 상시시험으로 변경 되어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미용사(피부)자격증은 학력과 나이 사회적 조건의 제약이 없으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어 전문 직업인으로는 빠른 시간안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망직종으로 부상하였다. 2012년 상시로 시험의 기회가 늘어나자 이 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 직종의 응시자들도 짧은 시간에 암기와 습득으로 합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최성미·김은화, 2010)

현재 학원에서 미용사(피부)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 단기간에 미용사(피부)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취득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미용사(피부)국가기술 자격증은 특별

한 응시 조건이 없으며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응시자들이 생기고, 미용사(피부)국가 기술 자격증이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도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제도를 참고하여, 현장 종사자들과의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상대로 조사한 후, 현 우리나라 제도에 맞는 교육 시간과 현장 실습을 접목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면 전문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미용사(피부)국가 기술 자격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허은옥, 2013)

본 연구는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증이 미용사(일반) 와 미용사(피부)로 나뉜 상황에서 수도권과 인천, 경기권지역 이라는 특정지역을 정하여, 현재의 미용사(피부)국가기술 자격증 취득과정과 자격증에 관한 평가 및 피부미용사들의 직무능력 활용도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피부미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피부미용업 및 미용사의 범위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2016년 2월 3일 개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영업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 용역업을 말하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 5항에 “미용업”이라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업은 다른 영업과 달리 면허 제도가 있는 영업으로 현행 국내의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1항)

첫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둘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제9법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셋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넷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

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은 2008년 2월 29일과 2010년 1월 18일에 개정을 거쳐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이 해당된다.(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3983호, 보건복지부령 제428호)

2.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 제도

국가 피부미용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리 아래 시행되었으나 2012년 1월 25일 이후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출제 부분은 산업인력공단이 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 실무 업무는 민간 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맡아 이원화 되었다. 2012년 이후 국가피부미용사 자격증 검정 시험 횟수도 바뀌어, 정시(1년에 4번) 보다 연간 검정횟수가 많은 상시시험이 실행되어 자격증 수험자들은 시험 볼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 2012).

표 1. 종목별 검정현황

종 목	연 도	필 기			실 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미용사(피부)	2015	51,397	19,801	38.5%	37,652	13,752	35.5%
미용사(피부)	2014	68,971	23,308	33.8%	42,392	14,147	33.4%
미용사(피부)	2013	80,265	33,439	41.7%	49,004	17,288	35.3%
미용사(피부)	2012	62,386	30,496	48.9%	41,768	16,976	40.6%
미용사(피부)	2011	43,413	29,612	68.2%	45,345	20,004	44.1%
미용사(피부)	2010	62,725	37,089	59.1%	55,518	24,862	44.8%
미용사(피부)	2009	73,890	34,825	47.1%	63,649	32,379	50.9%
미용사(피부)	2008	66,543	50,477	75.9%	41,119	23,173	56.4%
소 계		509,590	259,047	50.8%	376,447	162,581	43.2%

한국자격기술검정원 www.q-net.or.kr, 2016년 12월 15일 검색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관리 범위는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 미용을 수행하는 직무이다.(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012)

출제기준의 직무내용은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 미용을 수행하는 직무를 말하며, 자격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실기검정방법 - 작업형 (표준작업시간 : 2 시간 15분)

나) 합격기준 -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3. 미용사(피부)실기 검정종목

1) 실기과정 - 1과제 : 1시간 15분(준비작업시간 및 위생점검시간 제외)

표 2.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검정과목 - 1과제

순서	작업명	요구내용	시간	비고
1	관리계획 표작성	제시된 피부타입 및 제품을 적용한 피부 관리 계획은 작성하시오	10분	
2	클렌징	지참한 제품을 이용하여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우고 관리범위를 클렌징 한 후, 코튼 또는 해면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고하고, 피부를 정돈하시오	15분	도포 후 문지르기는 2~3분 정도 유지하시오
3	눈썹정리	족집게와 가위, 눈썹칼을 이용하여 얼굴형에 맞는 눈썹모양을 만들고, 보기에 아답게 눈썹을 정리하시오.	5분	눈썹을 뽑을 때 감독 확인 하에 작업하시오.(한쪽 눈썹에만 작업하시오)
4	딤클렌징	스크럽, AHA, 고마쥐, 효소의 4가지 타입 중 지정된 제품을 이용하여 얼굴에 딤클렌징한 후, 피부를 정돈하시오	10분	제시된 지정타입만 사용하시오
5	손을이용한 관리 (메뉴얼테크닉)	화장품(크림 혹은 오일타입)을 관리부위에 도포하고, 적절한 동작을 사용하여 관리한 후, 피부를 정돈하시오	15분	
6	팩	팩을 위한 기본 전처리를 실시한 후, 제시된 피부타입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관리부위에 적당량을 도포하고, 일정시간경과 뒤 팩을 제거한 후, 피부를 정돈하시오	10분	팩을 도포한 부위는 코튼으로 덮지 마시오
7	마스크 및 마무리	마스크를 위한 기본 전처리를 실시한 후, 지정된 제품을 선택하여 관리부위에 작업하고, 일정시간 경과 뒤 마스크를 제거한 다음 피부를 정돈한 후 최종 마무리와 주변 정리를 하시오	20분	제시된 지정마스크만 사용하시오

2) 실기과정 - 2과제 : 35분(준비작업시간 제외)

표 3.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검정과목 - 2과제

순서	작업명		요구내용	시간	비고
1	손을 이용한 관리(매뉴얼테크닉)	팔 (전체)	모델의 관리부위(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를 화장수를 사용하여 가볍고 신속하게 닦아낸 후 화장품(크림 혹은 오일 타입)을 도포하고, 적절한 동작을 사용하여 관리하시오.	10분	총작업시간의 90% 이상을 유지하시오.
		다리 (전체)		15분	
2	제 모		왁스 워머에 데워진 핫 왁스를 필요량만큼 용기에 덜어서 작업에 사용하고, 다리에 왁스를 부직포 길이에 적합한 면적만큼 도포한 후, 체모를 제거하고 체모부위의 피부를 정돈하시오.	10분	제모는 좌우구분이 없으며 부직포 제거전 손을 들어 감독의 확인을 받으시오.

3) 실기과정 - 3과제 : 15분(준비작업시간 제외)

표 4.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검정과목 -3과제

순서	작업명	요구내용	시간	비고
1	립프를 이용한 피부관리	적절한 압력과 속도를 유지하며 목과 얼굴 부위에 림프질 방향에 맞추어 피부관리를 실시하시오. (단, 에플라쥐 동작을 시작과 마지막에 하시오)	15분	종료시간에 맞추어 관리하시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16년 12월 8일부터 2017년 1월 23일까지 구글 설문지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과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연구자가 종사했던 학원의 학생과 학원을 졸업한 실기시험 합격자들 중 여자를 대상으로 연령 상관없이 설문을 시작하여, 총 19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표 5. 연구 표본

연구 대상	미용사(피부)자격증 취득자
연구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연구 기간	2016년 12월 8일 ~ 2017년 1월 23일
연구 방법	구글 설문지 서비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연구도구로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 예비 설문을 통해 부족한 내용 및 설문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설문지의 구성

구 분	주요내용	문항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나이, 결혼, 최종학력, 직업	6
실기시험 취득에 관한 내용	취득연도, 장소, 비용, 동기,	8
실기시험에 관한 평가	난이도, 감독평가, 시간	13
실기시험에 관한 시설 평가	환경 및 설비에 관한	10
실기시험의 개선방향	추가과목, 보수교육	2
직무능력활용도	1,2,3과목 직무활용도	15
직업에 관한평가	경력, 근무환경	7
직업만족도	근무시간, 근무만족	7
총 문항 수		68

3. 자료분석 및 방법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20.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격증 시험 기준에 따른 실기시험취득, 실기 시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칸(cell)이 전체 칸 수의 20이하 일 때는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자격증 시험 기준에 따라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하였으며 유의확률은 *p<0.05, **p<0.01, ***p<0.001 으로 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7>와 같다. 먼저 연령은 20대 103명(54.2%), 30대 55명(28.9%), 40대 24명(12.6%), 50대 이상 6명(4.2%)으로 20대가 절반 이상이였다. 결혼유무는 미혼 141명(74.2%), 기혼 46명(24.2%), 별거 3명(1.6%)이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9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 졸업 57명(30.0%), 대학 졸업 53명(27.9%), 대학원 졸업 11명(5.8%)의 순이였다.

1달 평균수입은 100~200만원 이하 94명(49.5%), 100만원 이하 44명(23.2%), 200~300만원 이하 37명(19.5%), 300~400만원 이하 12명(6.3%), 500만원 이상 3명(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피부관리 샵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55명(28.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53명(27.9%), 피부과 내 에스테틱 38명(20.0%), 학생 25명(13.2%), 스파 샵 11명(5.8%), 화장품 회사 8명(4.2%)이였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은 서울 112명(58.9%), 경기, 인천이 78명(41.1%)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는 20대(52.2%)가 대부분이고 미혼여성(74.2%)이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36.3%)의 학력과 100~200만원(49.5%)의 1달 평균 수입으로 피부관리샵 종사자(28.9%)로 많았으며, 거주지역은 서울(58.9%)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표 7. 조사대상자별 일반적 특성

구분	선택	N	(%)
연령	20대	103	(54.2)
	30대	55	(28.9)
	40대	24	(12.6)
	50대 이상	6	(4.2)
결혼유무	미혼	141	(74.2)
	기혼	46	(24.2)
	별거	3	(1.6)
학력	고등학교 졸업	69	(36.3)
	전문대학 졸업	57	(30.0)
	대학 졸업	53	(27.9)
	대학원 졸업	11	(5.8)
1달 평균수입	100만원 이하	44	(23.2)
	100~200만원 이하	94	(49.5)
	200~300만원 이하	37	(19.5)
	300~400만원 이하	12	(6.3)
	500만원 이상	3	(1.6)
직업	피부관리 샵	55	(28.9)
	피부과 내 에스테틱	38	(20.0)
	스파샵	11	(5.8)
	화장품 회사	8	(4.2)
	학생	25	(13.2)
	기타	53	(27.9)
거주지역	서울	112	(58.9)
	경기, 인천	78	(41.1)
합계		190	(100.0)

2. 실기시험 취득 실태

실기시험 취득의 실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자격증 취득연도를 조사한 결과 2012~2016(상시시험) 129명(67.9%), 2008~2011(정기시험) 61명(32.1%)으로 최근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실기시험 장소로는 서울 142명(74.7%), 경기, 인천 48명(25.3%)으로 나타났다.

표 8. 실기시험 취득연도 및 장소

구분	선택	N	(%)
자격증 취득연도	2008~2011(정기시험)	61	(32.1)
	2012~2016(상시시험)	129	(67.9)
실기시험 장소	서울	142	(74.7)
	경기, 인천	48	(25.3)
합계		190	(100.0)

실기시험 취득 실패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자격증 실기 교육장소는 미용학원 126명(66.3%), 대학교 19명(10.0%), 고등학교 16명(8.4%), 직업학교 11명(5.8%)의 순이었으며, 삼과 독학이 각각 6명(3.2%), 국비지원학원과 기타가 각각 3명(1.6%)이었다. 자격증 취득 소요 기간은 1~3달 이내가 83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3~6달 이내 54명(28.4%), 6개월 이상 25명(13.2%), 1달 이내 19명(10.0%), 1년 이상 9명(4.7%)으로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자격증 취득 시 사용된 비용은 100~200만원 이내 86명(45.3%), 50~100만원 이내 37명(19.5%), 200만원 이상 35명(18.4%), 50만원 이내 32명(1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은화·황지영·김현정(2013)의 선행 논문에서 시험 준비자들의 수험 동향 분석을 보면 미용학원에서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9. 실기시험 취득 실태

구분	선택	N	(%)
자격증 실기 교육장소	고등학교	16	(8.4)
	대학교	19	(10.0)
	미용학원	126	(66.3)
	직업학교	11	(5.8)
	국비지원학원	3	(1.6)
	샵	6	(3.2)
	독학으로(실기책으로 독학)	6	(3.2)
	기타	3	(1.6)
자격증 취득 소요 기간	1달 이내	19	(10.0)
	1~3달 이내	83	(43.7)
	3~6달 이내	54	(28.4)
	6개월 이상	25	(13.2)
	1년 이상	9	(4.7)
자격증 취득시 사용된 비용	50만원 이내	32	(16.8)
	50~100만원 이내	37	(19.5)
	100~200만원 이내	86	(45.3)
	200만원 이상	35	(18.4)
합계		190	(100.0)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취득동기 결과는 <표 10>와 같다. 자격증 취득 동기로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서’가 81명(42.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관심이 있어서’ 37명(19.5%), ‘창업을 위해서’ 27명(14.2%),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19명(10.0%), ‘생계수단을 위해서’와 ‘가족이나 친구들의 권유’로 각각 8명(4.2%), ‘유망직종이라서’ 5명(2.6%), ‘대학진학을 위해’ 3명(1.6%), ‘기타’ 2명(1.1%)의 순이었다.

경기 불황과 극심한 취업난으로 평생 직장란 말이 없어진 요즘 전문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 자격증 취득동기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2010년에는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취득동기를 분석한 결과 ‘유망직종으로 생각되어서’가 70명(44.9%)로 가장 높았고, ‘취업에 유리하다는 주변의

권유’가 32명(20%),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36명(23.1%), ‘생활 피부미용에 이용하려고 8명(5.1%)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미용사(피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 되었다는 선행 연구와 다소 달랐다.(이지현·윤천성 2010) (진희영 2010)

표 10.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취득동기

구분	선택	N	(%)
자격증 취득 동기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서	81	(42.6)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19	(10.0)
	생계수단을 위해서	8	(4.2)
	가족이나 친구들의 권유로	8	(4.2)
	유망직종이라서	5	(2.6)
	창업을 위해서	27	(14.2)
	관심이 있어서	37	(19.5)
	대학진학을 위해	3	(1.6)
	기타	2	(1.1)
	합계	190	(100.0)

3. 실기시험에 관한 난이도 평가

실기시험에 관한 난이도 평가의 결과는 <표 11>와 같다. 1과제의 난이도는 적당한가에 대한 설문은 ‘예’ 168명(88.4%), ‘아니오’ 22명(11.6%)이었다. 2과제의 난이도는 적당한가 역시 ‘예’ 169명(88.9%), ‘아니오’ 21명(11.1%)이었고, 3과제의 난이도는 적당한가의 경우 ‘예’ 157명(82.6%), ‘아니오’ 33명(17.4%)이었다. 따라서 실기시험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은옥(2013)의 선행논문에서도 국가자격증 시험의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이라고 응답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았다.

표 11. 실기시험 난이도 평가

구 분	선 택	N	(%)
1과제의 난이도는 적당한가	예	168	(88.4%)
	아니오	22	(11.6%)
2과제의 난이도는 적당한가	예	169	(88.9%)
	아니오	21	(11.1%)
3과제의 난이도는 적당한가	예	157	(82.6%)
	아니오	33	(17.4%)
합 계		190	(100.0%)

4. 실기시험 감독관에 대한 평가

실기시험 감독관에 대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감독위원의 평가는 만족하는가에 대해서는 ‘예’ 97명(51.1%), ‘아니오’ 93명(48.9%)으로 나타났다. ‘아니오’라고 답한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중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이유는 감점요인의 불분명함’이 54명(58.1%)으로 가장 많았고, ‘감독관의 주관적 심사기준’ 31명(33.3%), ‘감독관의 자질’ 5명(5.4%)이었다. ‘감독관의 감독태도가 불만인 점으로는 옆에서 시험에 방해될 정도로 쳐다본다’ 45명(48.4%), ‘왔다갔다해서 집중을 못하겠다’ 27명(29.0%), ‘멀리서만 채점한다’ 12명(12.9%), ‘움직이면서 웨곤을 밀친다’ 5명(5.4%), ‘신발소리가 너무 난다’ 2명(2.2%)의 순이었다.

2008년 처음 진행되었던 미용사(피부)자격증 시험에 대한 감독위원의 기준조건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공지되어 있고 ‘세부 작업별 점수부여 방법 등 채점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 교육을 이수한 자만을 공단에서 직접 위촉했다는 규정에 의해 감독위원을 위촉 후 시험보기 전 3~5시간 정도 교육만을 뿐 채점 방법에는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

2008년 처음 진행되었는데 감독위원을 어떤 기준점을 두고 위촉했는지 많은 피부미용인들과 수험생들은 감독위원 자질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으며, 감독위원들은 채택 기준에 적합하여 위촉되었지만, 통일된 테크닉도 아니고 세부화된 내용의 객관성있게 심사하기 어려움있다고 본다. 시험운영환경이 지역별로 다르고, 감독관별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자들 사이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독위원들의 교육시간을 늘려서 더 세부화된 심사기준이 한계점을 발표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희영 2010)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관리본부 기술자격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에 의해 국가자격증의 종목별 세부점수는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어 추후 점수가 낮은 종목을 파악해 시험에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표 12. 실기시험에 감독관에 대한 평가

구 분	선 택	N	(%)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이유	감독관의 주관적 심사기준	31	(33.3%)
	감점요인의 불분명함	54	(58.1%)
	감독관의 자질	5	(5.4%)
	감독과 수가 적어서 감독으로 판단이 힘들	3	(3.2%)
감독관의 감독태도가 불만인 점	옆에서 시험에 방해될 정도로 쳐다본다	45	(48.4%)
	신발소리가 너무 난다	2	(2.2%)
	왔다갔다해서 집중을 못하겠다	27	(29.0%)
	멀리서만 채점한다	12	(12.9%)
	움직이면서 웨곤을 밀친다	5	(5.4%)
	불필요한 소리를 낸다	1	(1.1%)
	기 타	1	(1.1%)
	합 계	190	(100.0%)

5. 실기시험에 관한 환경 평가

실기시험에 관한 환경 평가 결과는 <표 13>와 같다. 실내온도는 적당했는가는 ‘예’ 117명(61.6%), ‘아니오’ 73명(38.4%)이었고, 대기장소의 공간이 충분했는가는 ‘아니오’ 123명(64.7%), ‘예’ 67명(35.3%)이었다. 실기시험 시 다른 수험자와의 거리는 적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예’ 140명(73.7%), ‘아니오’ 50명(26.3%)으로 나타났고, 베드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는 ‘예’ 152명(80.0%), ‘아니오’ 38명(20.0%)이었다. 수험자의 의자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는 ‘예’ 144명(75.8%), ‘아니오’ 46명(24.2%)이었고, 웨곤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는 ‘예’ 153명(80.5%), ‘아니오’ 37명(19.5%), 온장고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는 ‘예’ 137명(72.1%), ‘아니오’ 53명(27.9%)이었다. 왁스(제모 시)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는 ‘예’ 154명(81.1%), ‘아니오’ 36명(18.9%), 실기시험 장소의 수험자의 인원은 적당했는가는 ‘예’ 133명(70.0%), ‘아니오’ 57명(30.0%), 실기시험 장소의 시계의 위치는 적당했는가는 ‘예’ 140명(73.7%), ‘아니오’ 50명(26.3%)이었다.

실기시험에 관한 환경 평가는 대기장소 공간을 제외하면 실기시험 환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표 13. 실기시험에 관한 환경 평가

구 분	선 택	N	(%)
실내온도는 적당했는가	예	117	(61.6%)
	아니오	73	(38.4%)
대기장소의 공간이 충분했는가	예	67	(35.3%)
	아니오	123	(64.7%)
실기시험 시 다른 수험자와의 거리는 적당했는가	예	140	(73.7%)
	아니오	50	(26.3%)
베드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	예	152	(80.0%)
	아니오	38	(20.0%)
수험자의 의자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	예	144	(75.8%)
	아니오	46	(24.2%)
웨곤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	예	153	(80.5%)
	아니오	37	(19.5%)
온장고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	예	137	(72.1%)
	아니오	53	(27.9%)
왁스(제모 시)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	예	154	(81.1%)
	아니오	36	(18.9%)
실기시험 장소의 수험자의 인원은 적당했는가	예	133	(70.0%)
	아니오	57	(30.0%)
실기시험 장소의 시계의 위치는 적당했는가	예	140	(73.7%)
	아니오	50	(26.3%)
	합 계	190	(100.0%)

실기시험에 관한 시간 및 장소 평가 결과는 <표 14>와 같다. 시험시간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예’ 158명(83.2%), ‘아니오’ 32명(16.8%)으로 대부분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시험장소는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예’ 115명(60.5%), ‘아니오’ 75명(39.5%)으로 역시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그러나 준비물의 양은 적당한가에 대한 설문에는 ‘아니오’ 117명(61.6%), ‘예’ 73명(38.4%)로 준비물이 양이 많다고 느낀 응답자가 더 많이 나왔다.

실기시험에 관한 시간 및 장소 평가는 시험시간과 장소는 적당하다고 응

답했지만, 준비물의 양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표 14. 실기시험에 관한 평가 - 시간 및 장소

구 분	선 택	N	(%)
시험시간은 적절한가	예	158	(83.2%)
	아니오	32	(16.8%)
시험장소는 적당한가	예	115	(60.5%)
	아니오	75	(39.5%)
준비물의 양은 적당한가	예	73	(38.4%)
	아니오	117	(61.6%)
합 계		190	(100.0%)

6. 실기시험의 개선방향

실기시험의 개선방향에 대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실기시험과목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니오 124명(65.3%), 예 66명(34.7%)으로 추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어떤 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얼굴기기관리와 등관리가 각각 24명(36.4%)이었고, 아로마테라피 7명(10.6%), 두피관리 5명(7.6%), 경락 4명(6.1%), 발관리 2명(3.0%)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희영(2010)의 연구에서는 실기시험에 추가해야할 과목에 대한 결과에서는 ‘얼굴과 바디관리’가 가장 높게 나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피부미용 업무범위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피부관리’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피부미용실은 이/미용기기분류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피부미용업무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정

의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 실기검정종목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기를 이용한 관리 기술을 반영하여 법으로 제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홍미숙, 2011)

표 15. 실기시험 개선방향 중 추가과목

구 분	선 택	N	(%)
실기시험과목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예	66	(34.7%)
	아니오	124	(65.3%)
추가한다면 어떤 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얼굴기기관리	24	(36.4%)
	등관리	24	(36.4%)
	발관리	2	(3.0%)
	경락	4	(6.1%)
	아로마테라피	7	(10.6%)
	두피관리	5	(7.6%)
합 계		190	(100.0%)

보수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결과는 <표 16>와 같다. 보수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예 102명(53.7%), 아니오 88명(46.3%)으로 나타났다. 어떤 과목이 필요한가는 서비스교육 25명(24.5%), 얼굴관리 24명(23.5%), 기기관리 22명(21.6%), 바디관리 21명(20.6%), 위생교육 9명(8.8%), 기타 1명(1.0%)의 순이었다.

표 16. 실기시험 개선방향 중 보수교육

구 분	선 택	N	(%)
보수교육이 필요한가?	예	102	(53.7%)
	아니오	88	(46.3%)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과목이 필요한가	얼굴관리	24	(23.5%)
	바디관리	21	(20.6%)
	서비스교육	25	(24.5%)
	위생교육	9	(8.8%)
	기기관리	22	(21.6%)
	기타	1	(1.0%)
합 계		190	(100.0%)

7.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

1)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1과목)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1과목)에 대한 결과는 <표 17>와 같다. 우선 클렌징과 마스크-고무마스크가 각각 4.62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매뉴얼테크닉으로 4.35점의 점수를 기록하였고, 딥클렌징-스크럽 4.27점, 딥클렌징-효소와 마스크-석고마스크가 각각 4.23점, 팩 4.06점, 딥클렌징-A.H.A 4.03점, 딥클렌징-고마취 4.02점, 고객관리차트 3.77점의 순이었다. 눈썹정리는 3.0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표 17.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 - 1과목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1과목)	점수
고객관리차트	3.77±1.24 ¹⁾
눈썹정리	3.06±1.32
클렌징	4.62±0.76
딤클렌징 - 스크럽	4.27±1.03
딤클렌징 - 고마쥬	4.02±1.17
딤클렌징 - 효소	4.23±1.08
딤클렌징 - A.H.A	4.03±1.21
메뉴얼테크닉	4.35±0.85
팩	4.06±1.19
마스크 - 석고마스크	4.23±1.06
마스크 - 고무마스크	4.62±0.67

1) M±SD-M:mean, SD:standard deviation

* 1(전혀 필요없다) ← 3(보통이다) → 5(매우 필요하다)

2)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2과목)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2과목)에 대한 결과는 <표 18>와 같다.
팔, 다리관리는 3.94점, 제모는 3.50점의 점수를 받았다.

표 18.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 - 2과목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2과목)	점수
팔/다리관리	3.94±1.09 ¹⁾
제모	3.50±1.21

1) M±SD-M:mean, SD:standard deviation

* 1(전혀 필요없다) ← 3(보통이다) → 5(매우 필요하다)

3)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3과목)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3과목) 립프 과목는 점3.39점 이었다.(표 14)

표 19.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 - 3과목

실기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3과목)	점수
립프	3.39±1.33 ¹⁾

1) M±SD-M:mean, SD:standard deviation

* 1(전혀 필요없다) ← 3(보통이다) → 5(매우 필요하다)

8. 응시자의 직업

응시자의 직업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20>와 같다. 먼저 경력을 보면 4년 이상이 20명(30.3%)으로 가장 많았다. 6개월 미만 16명(24.2%), 2년~4년 미만 14명(21.2%), 1~2년 미만 11명(16.7%), 6~12개월 미만 5명(7.6%)이 그 뒤를 이었고, 경력은 기간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용하는 관리는 얼굴 수기관리 24명(36.4%), 얼굴 기기관리 17명(25.8%), 얼굴 기본관리와 바디 수기관리가 각각 10명(15.2%), 두피관리 3명(4.5%), 바디 기기관리 2명(3.0%)의 순이었다. 자격증만으로 고객관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니오’ 48명(72.7%), ‘예’ 18명(27.3%)으로 고객관리를 위해서는 자격증 외에 다른 요건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응시자의 직업에 관한 조사

구 분	선 택	N	(%)
경 력	6개월 미만	16	(24.2%)
	6~12개월 미만	5	(7.6%)
	1~2년 미만	11	(16.7%)
	2년~4년 미만	14	(21.2%)
	4년 이상	20	(30.3%)
가장 많이 적용하는 관리	얼굴 수기관리	24	(36.4%)
	얼굴 기기관리	17	(25.8%)
	얼굴 기본관리	10	(15.2%)
	바디 수기관리	10	(15.2%)
	바디 기기관리	2	(3.0%)
	두피관리	3	(4.5%)
자격증만으로 고객관리가 가능한가?	예	18	(27.3%)
	아니오	48	(72.7%)
합 계		66	(100.0%)

9. 경력과 자격증 유용성 관련도

경력과 자격증 유용성 관련도의 내용은 <표 21>와 같다. 경력이 6개월 미만에서는 자격증만으로 고객관리가 가능한가에 대해 ‘예’ 5명(31.3%), ‘아니오’ 11명(68.8%), 6~12개월 미만에서는 ‘예’ 3명(60.0%), ‘아니오’ 2명(40.0%), 1~2년 미만에서는 ‘예’ 3명(27.3%), ‘아니오’ 8명(72.7%), 2~4년 미만에서는 ‘예’ 4명(28.6%), ‘아니오’ 10명(71.4%), 4년이상에서는 ‘예’ 3명(15.0%), ‘아니오’ 17명(85.0%)로 경력이 높을수록 자격증만으로 고객관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자격증 시험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현장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문제점들이

나타고 있다. 전공과 관련 없이 사설학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실기기술의 반복적인 연습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반인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응시조건이 제한이 없이 정기시험 뿐 아니라 상시 시험이 생김으로써 많은 피부미용사를 배출하고 있지만, 피부미용사 자질은 배출인원에 상반되게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한 이론 및 실기 교육은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홍미숙, 2011)

표 21. 경력과 자격증 유용성 관련도

구분	선택	경력					전체	x ² (Fisher) (p)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년 미만	2년~4년 미만	4년 이상		
미용사(피부) 자격증 만으로 고객관리가 가능한가	예	5 (31.3)	3 (60.0)	3 (27.3)	4 (28.6)	3 (15.0)	18 (27.3)	4.344 (0.352)
	아니오	11 (68.8)	2 (40.0)	8 (72.7)	10 (71.4)	17 (85.0)	48 (72.7)	
전체		16 (100)	5 (100)	11 (100)	14 (100)	20 (100)	66 (100)	

10.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자격증 취득 실태 비교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자격증 취득 실태 비교 결과는 <표 22>와 같다. 자격증 실기 교육장소는 전체적으로 보면 미용학원이 126명(66.3%)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19명(10.0%), 고등학교 16명(8.4%), 직업학교 11명(5.8%), 사립과 독학이 각각 6명(3.2%), 국비지원학원과 기타가 각각 3명(1.6%)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2008~2011(정기시험)은 미용학원

22명(36.1%), 대학교 12명(19.7%), 직업학교 9명(14.8%), 고등학교 7명(11.5%)이었다. 그런데 2012~2016(상시시험)의 경우 역시 미용학원이 104명(80.6%)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은 고등학교 9명(7.0%)이었고, 대학교 7명(5.4%), 직업학교 2명(1.6%)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따라서 자격증 실기 교육장소는 자격증 취득연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자격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기간은 전체적으로 1~3달 이내가 83명(43.7%), 3~6달 이내 54명(28.4%), 6개월 이상 25명(13.2%), 1달 이내 19명(10.0%), 1년 이상 9명(4.7%)의 순이었다.

자격증 취득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2008~2011(정기시험)은 1~3달 이내 22명(36.1%), 3~6달 이내 17명(27.9%), 1달 이내 14명(23.0%)으로 나타났다. 2012~2016(상시시험)은 1~3달 이내 61명(47.3%), 3~6달 이내 37명(28.7%)이었으나 그 다음은 6개월 이상으로 20명(15.5%)이었다.

상시시험의 경우 정기시험에 비해 소요 기간이 길었던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기간은 취득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p < 0.01$).

자격증 취득 시 사용된 비용은 전체적으로 100~200만원 이내가 86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100만원 이내 37명(19.5%), 200만원 이상 35명(18.4%), 50만원 이내 32명(16.8%)의 순이었다. 자격증 취득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2008~2011(정기시험)은 100~200만원 이내 21명(34.4%), 50만원 이내 20명(32.8%)으로 나타났으나, 2012~2016(상시시험)은 100~200만원 이내 65명(50.4%), 200만원 이상 29명(22.5%)이었다.

정기시험은 상시시험에 비해 저비용의 비율이 높았고, 상시시험은 고비용을 지불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 따라서 자격증 취득 시 사용된 비용은 취득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표 22.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자격증 취득 실태 비교

구 분	선 택	자격증 취득연도		전체	x ² (Fisher) (p)
		2008~2011 (정기시험)	2012~2016 (상시시험)		
자격증 실기 교육장소	고등학교	7 (11.5%)	9 (7.0%)	16 (8.4%)	47.753 (0.000***) Fisher
	대학교	12 (19.7%)	7 (5.4%)	19 (10.0%)	
	미용학원	22 (36.1%)	104 (80.6%)	126 (66.3%)	
	직업학교	9 (14.8%)	2 (1.6%)	11 (5.8%)	
	국비지원학원	0 (0.0%)	3 (2.3%)	3 (1.6%)	
	샵	6 (9.8%)	0 (0.0%)	6 (3.2%)	
	독학으로 (실기책으로독학)	3 (4.9%)	3 (2.3%)	6 (3.2%)	
	기타	2 (3.3%)	1 (0.8%)	3 (1.6%)	
	자격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기간	1달 이내	14 (23.0%)	5 (3.9%)	
1~3달 이내		22 (36.1%)	61 (47.3%)	83 (43.7%)	
3~6달 이내		17 (27.9%)	37 (28.7%)	54 (28.4%)	
6개월 이상		5 (8.2%)	20 (15.5%)	25 (13.2%)	
1년 이상		3 (4.9%)	6 (4.7%)	9 (4.7%)	
자격증 취득 시 사용된 비용	50만원 이내	20 (32.8%)	12 (9.3%)	32 (16.8%)	20.046 (0.000***)
	50~100만원 이내	14 (23.0%)	23 (17.8%)	37 (19.5%)	
	100~200만원 이내	21 (34.4%)	65 (50.4%)	86 (45.3%)	
	200만원 이상	6 (9.8%)	29 (22.5%)	35 (18.4%)	
전체		61 (100.0%)	129 (100.0%)	190 (100.0%)	

p<0.01, *p<0.001

11.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자격증 취득 필요성 및 동기 비교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취득 필요성 및 동기 비교 결과는 <표 23>와 같다.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86명(45.3%), ‘그렇다’ 44명(23.2%), ‘보통’ 40명(21.1%),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10명(5.3%)의 순으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자격증 취득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2008~2011(정기시험)은 ‘매우 그렇다’ 34명(55.7%), ‘그렇다’ 12명(19.7%), ‘보통’ 8명(13.1%)이었다. 2012~2016(상시시험)은 ‘매우 그렇다’ 52명(40.3%), 그 다음은 ‘보통’과 ‘그렇다’가 각각 32명(24.8%)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연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취득 동기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서’가 81명(42.6%)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37명(19.5%), ‘창업을 위해서’ 27명(14.2%),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19명(10.0%), ‘생계수단을 위해서’와 ‘가족이나 친구들의 권유’로 각각 8명(4.2%), ‘유망직종이라서’ 5명(2.6%), ‘대학진학을 위해’ 3명(1.6%), 기타 2명(1.1%)이 그 뒤를 이었다. 자격증 취득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2008~2011(정기시험)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서’ 29명(47.5%), ‘관심이 있어서’ 10명(16.4%),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7명(11.5%)의 순이었다. 2012~2016(상시시험)은 역시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서’가 52명(40.3%)으로 가장 높았으나 그 다음은 ‘관심이 있어서’ 27명(20.9%), ‘창업을 위해서’ 23명(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자격증 취득 동기는 취득연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자격증 필요성 및 동기

구 분	선 택	자격증 취득연도		전체	x ² (Fisher) (p)
		2008~2011 (정기시험)	2012~2016 (상시시험)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매우 그렇지 않다	4 (6.6%)	6 (4.7%)	10 (5.3%)	5.715 (0.218)
	그렇지 않다	3 (4.9%)	7 (5.4%)	10 (5.3%)	
	보통	8 (13.1%)	32 (24.8%)	40 (21.1%)	
	그렇다	12 (19.7%)	32 (24.8%)	44 (23.2%)	
	매우 그렇다	34 (55.7%)	52 (40.3%)	86 (45.3%)	
자격증 취득 동기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서	29 (47.5%)	52 (40.3%)	81 (42.6%)	13.114 (0.077)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7 (11.5%)	12 (9.3%)	19 (10.0%)	
	생계수단을 위해서	3 (4.9%)	5 (3.9%)	8 (4.2%)	
	가족이나 친구들의 권유로	5 (8.2%)	3 (2.3%)	8 (4.2%)	
	유망직종이라서	1 (1.6%)	4 (3.1%)	5 (2.6%)	
	창업을 위해서	4 (6.6%)	23 (17.8%)	27 (14.2%)	
	관심이 있어서	10 (16.4%)	27 (20.9%)	37 (19.5%)	
	대학진학을 위해	0 (0.0%)	3 (2.3%)	3 (1.6%)	
	기타	2 (3.3%)	0 (0.0%)	2 (1.1%)	
	전체	61 (100.0%)	129 (100.0%)	190 (100.0%)	

12.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실기시험에 관한 평가 비교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실기시험에 관한 평가 결과는 <표 24>와 같다. 1과목 난이도는 적당했는가(얼굴관리)에 대해서는 ‘예’ 168명(88.4%), ‘아니오’ 22명(11.6%)으로 대부분 난이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 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2008~2011(정기시험)은 ‘예’ 57명(93.4%), ‘아니오’ 4명(6.6%)이었고, 2012~2016(상시시험)은 ‘예’ 111명(86.0%), ‘아니오’ 18명(14.0%)이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과목의 난이도는 적당했는가(바디관리)는 ‘예’ 169명(88.9%), ‘아니오’ 21명(11.1%)으로 역시 대부분 난이도를 적당하다고 평가하였다. 취득연도별로는 2008~2011(정기시험)은 ‘예’ 57명(93.4%), ‘아니오’ 4명(6.6%)이었고, 2012~2016(상시시험)은 ‘예’ 112명(86.8%), ‘아니오’ 17명(13.2%)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3과목의 난이도는 적당했는가(림프)는 ‘예’ 157명(82.6%), ‘아니오’ 33명(17.4%)이었다. 그리고 2008~2011(정기시험)은 ‘예’ 54명(88.5%), ‘아니오’ 7명(11.5%)이었고, 2012~2016(상시시험)은 ‘예’ 103명(79.8%), ‘아니오’ 26명(20.2%)이었다. 이 결과에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따라서 실기시험 과목의 난이도 평가는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실기시험에 관한 평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24.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실기시험에 관한 평가

구분	선택	자격증 취득연도		전체	x ² (Fisher) (p)
		2008~2011 (정기시험)	2012~2016 (상시시험)		
1과목 난이도는 적당했는가(얼굴관리)	예	57 (93.4)	111 (86.0)	168 (88.4)	2.213 (0.154)
	아니오	4 (6.6)	18 (14.0)	22 (11.6)	
2과목의 난이도는 적당했는가(바디관리)	예	57 (93.4)	112 (86.8)	169 (88.9)	1.847 (0.220)
	아니오	4 (6.6)	17 (13.2)	21 (11.1)	
3과목의 난이도는 적당했는가(립프)	예	54 (88.5)	103 (79.8)	157 (82.6)	2.174 (0.157)
	아니오	7 (11.5)	26 (20.2)	33 (17.4)	
전체		61 (100.0)	129 (100.0)	190 (100.0)	

13.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감독관들에 대한 평가 비교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감독관들에 대한 비교에 관한 내용의 결과는 <표 25>와 같다. 감독관의 평가는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 97명(51.1%), ‘아니오’ 93명(48.9%)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자격증 취득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2008~2011(정기시험)은 ‘예’ 46명(75.4%), ‘아니오’ 15명(24.6%)이었으나, 2012~2016(상시시험)은 ‘아니오’ 78명(60.5%), ‘예’ 51명(39.5%)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자격증 취득연도에 따라 감독관 평가가 공정한지에 대해 다르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공정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감점요인

의 불분명함’ 54명(58.1%), ‘감독관의 주관적 심사기준’ 31명(33.3%), ‘감독관의 자질’ 5명(5.4%), ‘감독관 수가 적어서 감독으로 판단이 힘들’ 3명(3.2%)의 순이었다. 이것을 취득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2011(정기시험)은 ‘감점요인의 불분명함’이 9명(6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감독관의 자질’로 4명(26.7%)이었다. 그러나 2012~2016(상시시험)은 ‘감점요인의 불분명함’ 45명(57.7%), ‘감독관의 주관적 심사기준’ 29명(3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자격증 취득연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p < 0.01$).

‘감독관의 태도가 불만인 점으로는 옆에서 시험에 방해될 정도로 쳐다본다’ 45명(48.4%), ‘왔다갔다해서 집중을 못하겠다’ 27명(29.0%), ‘멀리서만 채점한다’ 12명(12.9%), ‘움직이면서 웨곤을 밀친다’ 5명(5.4%), ‘신발소리가 너무 난다’ 2명(2.2%), ‘불필요한 소리를 낸다’와 기타가 각각 1명(1.1%)이었다. 자격증 취득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2008~2011(정기시험)은 ‘왔다갔다해서 집중을 못하겠다’는 응답이 8명(53.3%)으로 절반을 넘었고, 그 다음은 ‘옆에서 시험에 방해될 정도로 쳐다본다’로 4명(26.7%)이었다. 그러나 2012~2016(상시시험)은 ‘옆에서 시험에 방해될 정도로 쳐다본다’가 41명(52.6%)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왔다갔다해서 집중을 못하겠다’는 19명(24.4%)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감독관의 태도가 불만인 점은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감독관들에 대한 비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감독관들의 평가

구분	선택	자격증 취득연도		전체	x ² (Fisher) (p)
		2008~2011 (정기시험)	2012~2016 (상시시험)		
감독관의 평가는 공정한가	예	46 (75.4)	51 (39.5)	97 (51.1)	21.331 (0.000***)
	아니오	15 (24.6)	78 (60.5)	93 (48.9)	
공정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감독관의 주관적 심사기준	2 (13.3)	29 (37.2)	31 (33.3)	13.392 (0.004**)
	감점요인의 불분명함	9 (60.0)	45 (57.7)	54 (58.1)	
	감독관의 자질	4 (26.7)	1 (1.3)	5 (5.4)	
	감독관 수가 적어서 감독으로 판단이 힘들	0 (0.0)	3 (3.8)	3 (3.2)	
감독관의 태도가 불만인 점	옆에서 시험에 방해될 정도로 쳐다본다	4 (26.7)	41 (52.6)	45 (48.4)	8.597 (0.161)
	신발소리가 너무 난다	1 (6.7)	1 (1.3)	2 (2.2)	
	왔다갔다해서 집중을 못하겠다	8 (53.3)	19 (24.4)	27 (29.0)	
	멀리서만 채점한다	2 (13.3)	10 (12.8)	12 (12.9)	
	움직이면서 웨곤을 밀친다	0 (0.0)	5 (6.4)	5 (5.4)	
	불필요한 소리를 낸다	0 (0.0)	1 (1.3)	1 (1.1)	
	기타	0 (0.0)	1 (1.3)	1 (1.1)	
	전체	61 (100.0)	129 (100.0)	190 (100.0)	

p<0.01, *p<0.001

14. 실기시험 장소에 따른 콘텐츠 평가 비교

실기시험 장소에 따른 콘텐츠 평가 비교 결과는 <표 26>와 같다. 먼저 답클렌징의 시간은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는 ‘예’ 153명(80.5%), ‘아니오’ 37명(19.5%)으로 대부분 시간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실기시험 장소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예’ 114명(80.3%), ‘아니오’ 28명(19.7%)이었고, 경기, 인천의 경우 ‘예’ 39명(81.3%), ‘아니오’ 9명(18.8%)이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팩의 (상시10분/정시15분) 시간이 충분했는가의 설문에는 ‘예’ 112명(58.9%), ‘아니오’ 78명(41.1%)으로 나타났다. 실기시험 장소별로는 서울은 ‘예’ 87명(61.3%), ‘아니오’ 55명(38.7%)이었고, 경기, 인천은 ‘예’ 25명(52.1%), ‘아니오’ 23명(47.9%)이었다. 이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팔다리 과정 시 중간(팔이 끝난 시점)에 시간체크(진행요원이) 시간이 주어졌었나에 대해서는 ‘예’ 131명(68.9%), ‘아니오’ 59명(31.1%)이었다. 시험 장소에 따라서는 서울은 ‘예’ 98명(69.0%), ‘아니오’ 44명(31.0%)이었고, 경기, 인천은 ‘예’ 33명(68.8%), ‘아니오’ 15명(31.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림프(상시15분/정시10분)시간이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는 ‘예’ 160명(84.2%), ‘아니오’ 30명(15.8%)으로 대부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시험장소별로는 서울은 ‘예’ 118명(83.1%), ‘아니오’ 24명(16.9%), 경기, 인천은 ‘예’ 42명(87.5%), ‘아니오’ 6명(12.5%)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즉 콘텐츠 평가는 실기시험 장소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6. 실기시험장소에 따른 콘텐츠 평가

구분	선택	실기시험 장소		전체	x ² (Fisher) (p)
		서울	경기, 인천		
딥클렌징의 시간은 충분했는가	예	114 (80.3)	39 (81.3)	153 (80.5)	0.021 (1.000)
	아니오	28 (19.7)	9 (18.8)	37 (19.5)	
팩의 (상시10분/정시15분) 시간이 충분했는가	예	87 (61.3)	25 (52.1)	112 (58.9)	1.250 (0.171)
	아니오	55 (38.7)	23 (47.9)	78 (41.1)	
팔다리 과정 시 중간(팔이 끝난시점)에 시간체크(진행요원이) 시간이 주어졌었나	예	98 (69.0)	33 (68.8)	131 (68.9)	0.001 (1.000)
	아니오	44 (31.0)	15 (31.3)	59 (31.1)	
립프(상시15분/정시10분)시간이 충분했는가	예	118 (83.1)	42 (87.5)	160 (84.2)	0.523 (0.506)
	아니오	24 (16.9)	6 (12.5)	30 (15.8)	
전체		142 (100.0)	48 (100.0)	190 (100.0)	

15. 실기시험 장소에 따른 환경(설비 및 시설)에 관한 평가 비교

실기시험 장소에 따른 환경(설비 및 시설)에 관한 평가 비교 결과는 <표 27>와 같다. 실내온도는 적당했는가의 설문에는 전체적으로 ‘예’ 117명(61.6%), ‘아니오’ 73명(38.4%)으로 나타났다. 대기장소의 공간이 충분했는가는 ‘아니오’가 123명(64.7%)으로 ‘예’라고 답한 67명(35.3%)보다 훨씬 많았다. 시험장소에 따라서는 서울의 경우 ‘아니오’ 93명(65.5%), ‘예’ 49명(34.5%)이었고, 경기, 인천은 ‘아니오’ 30명(62.5%), ‘예’ 18명(37.5%)으로 대기장소의

공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실기시험 시 다른 수험자와의 거리는 적당했는가는 ‘예’ 140명(73.7%), ‘아니오’ 50명(26.3%)의 순이었다. 실기시험 장소별로는 서울은 ‘예’ 102명(71.8%), 경기, 인천은 ‘예’ 38명(79.2%)이었다. 베드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는 ‘예’ 152명(80.0%), ‘아니오’ 38명(20.0%)으로 만족감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실기시험 장소에 따라서는 서울은 ‘예’ 113명(79.6%), 경기, 인천은 ‘예’ 39명(81.3%)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험자의 의자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는 ‘예’ 144명(75.8%), ‘아니오’ 46명(24.2%)의 순이었다. 시험 장소별로 보면 서울은 ‘예’ 104명(73.2%), 경기, 인천은 ‘예’ 40명(83.3%)이었다. 온장고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예’ 137명(72.1%), ‘아니오’ 53명(27.9%)으로 나타났다. 실기시험 장소별로는 서울은 ‘예’ 100명(70.4%), 경기, 인천은 ‘예’ 37명(77.1%)이었다. 왁스(제모 시)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는 ‘예’ 154명(81.1%), ‘아니오’ 36명(18.9%)의 순이었다. 실기시험 장소별로는 서울은 ‘예’ 116명(81.7%), 경기, 인천은 ‘예’ 38명(79.2%)이었다. 실기시험 장소의 수험자의 인원은 적당했는가는 ‘예’ 133명(70.0%), ‘아니오’ 57명(30.0%)으로 나타났다. 시험 장소별로 보면 서울은 ‘예’ 97명(68.3%), 경기, 인천은 ‘예’ 36명(75.0%)이었다. 마지막으로 실기시험 장소의 시계의 위치는 적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예’ 109명(76.8%), ‘아니오’ 33명(23.2%)으로 나타났다. 실기시험 장소별로는 서울은 ‘예’ 109명(76.8%), 경기, 인천은 ‘예’ 31명(64.6%)이었다. 그러나 모든 설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환경(설비 및 시설)에 관한 평가 비교는 실기시험 장소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실기시험장소에 따른 환경(설비 및 시설)에 관한 평가

구분	선택	실기시험 장소		전체	x ² (Fisher) (p)
		서울	경기, 인천		
실내온도는 적당했는가	예	86 (60.6)	31 (64.6)	117 (61.6)	0.245 (0.732)
	아니오	56 (39.4)	17 (35.4)	73 (38.4)	
대기장소의 공간이 충분했는가	예	49 (34.5)	18 (37.5)	67 (35.3)	0.141 (0.729)
	아니오	93 (65.5)	30 (62.5)	123 (64.7)	
실기시험 시 다른 수험자와의 거리는 적당했는가	예	102 (71.8)	38 (79.2)	140 (73.7)	0.996 (0.350)
	아니오	40 (28.2)	10 (20.8)	50 (26.3)	
베드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	예	113 (79.6)	39 (81.3)	152 (80.0)	0.063 (0.839)
	아니오	29 (20.4)	9 (18.8)	38 (20.0)	
수험자의 의자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	예	104 (73.2)	40 (83.3)	144 (75.8)	1.992 (0.178)
	아니오	38 (26.8)	8 (16.7)	46 (24.2)	
온장고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	예	100 (70.4)	37 (77.1)	137 (72.1)	0.791 (0.458)
	아니오	42 (29.6)	11 (22.9)	53 (27.9)	
왁스(제모 시)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	예	116 (81.7)	38 (79.2)	154 (81.1)	0.149 (0.831)
	아니오	26 (18.3)	10 (20.8)	36 (18.9)	
실기시험 장소의 수험자의 인원은 적당했는가	예	97 (68.3)	36 (75.0)	133 (70.0)	0.765 (0.467)
	아니오	45 (31.7)	12 (25.0)	57 (30.0)	
실기시험 장소의 시계의 위치는 적당했는가	예	109 (76.8)	31 (64.6)	140 (73.7)	2.743 (0.129)
	아니오	33 (23.2)	17 (35.4)	50 (26.3)	
전체		142 (100.0)	48 (100.0)	190 (100.0)	

16. 실기시험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에 대한 비교

실기시험과목의 직무능력 활용에 대한 비교 결과는 <표 28>와 같다. 1과제의 경우 고객관리차트는 정기시험이 4.37점, 상시시험 3.36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눈썹정리는 정기시험 3.52점, 상시시험 2.74점을 받았고, 클렌징도 정기시험 4.85점, 상시시험 4.46점이었으며, 매뉴얼테크닉도 정기시험 4.63점, 상시시험 4.15점으로 정기시험의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이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딥클렌징-스크럽은 정기시험은 4.48점, 상시시험은 4.13점을 받았고, 마스크-고무마스크는 정기시험의 경우 4.67점, 상시시험 4.59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과제는 팔,다리관리의 경우 정기시험 4.11점, 상시시험 3.82점으로 정기시험의 점수가 더 높았고, 제모 역시 정기시험이 3.74점으로 상시시험 3.33점보다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3과제 림프는 정기시험의 경우 3.56점으로 상시시험 3.2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역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표 28. 실시시험 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

	정기시험 점수	상시시험 점수	t (p)
	4.37±0.97 ¹⁾	3.36±1.25	3.542 (0.001**)
고객관리차트			
눈썹정리	3.52±1.31	2.74±1.25	2.426 (0.018*)
클렌징	4.85±0.46	4.46±0.88	2.105 (0.039*)
딤클렌징 - 스크럽	4.48±0.89	4.13±1.10	1.378 (0.173)
딤클렌징 - 고마쥐	4.15±1.23	3.92±1.13	0.766 (0.447)
1과제 딤클렌징 - 효소	4.37±1.15	4.13±1.03	0.896 (0.374)
딤클렌징 - A.H.A	4.30±1.20	3.85±1.20	1.494 (0.140)
메뉴얼테크닉	4.63±0.63	4.15±0.93	2.309 (0.024*)
팩	4.11±1.15	4.03±1.22	0.285 (0.776)
마스크 - 석고마스크	4.04±1.29	4.36±0.87	-1.213 (0.230)
마스크 - 고무마스크	4.67±0.62	4.59±0.72	0.453 (0.652)
2과제 팔/다리관리	4.11±1.09	3.82±1.10	1.062 (0.292)
제모	3.74±1.20	3.33±1.20	1.358 (0.179)
3과제 림프	3.56±1.37	3.28±1.32	0.817 (0.417)

1) M±SD-M:mean, SD:standard deviation

* 1(전혀 필요없다) ← 3(보통이다) → 5(매우 필요하다)

*p<0.05, **p<0.01

17.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자 특성

조사대상자별 직업에 관한 특징은 <표 29>와 같다. 먼저 경력을 살펴보면 4년 이상이 20명(30.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개월 미만 16명(24.2%), 2년~4년 미만 14명(21.2%), 1~2년 미만 11명(16.7%), 6~12개월 미만 5명(7.6%)의 순이었다. 자격증 취득연도별로 보면 2008~2011(정기시험)은 4년 이상 17명(63.0%), 2년~4년 미만 5명(18.5%), 1~2년 미만 4명(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2016(상시시험)은 6개월 미만이 15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2년~4년 미만 9명(23.1%), 1~2년 미만 7명(17.9%)이 그 뒤를 이었다. 상시시험의 경우 경력이 짧은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나, 정기시험은 경력이 긴 대상자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가장 많이 적용하는 관리를 보면 얼굴 수기관리 24명(36.4%), 얼굴 기기관리 17명(25.8%), 얼굴 기본관리와 바디 수기관리가 각각 10명(15.2%), 두피관리 3명(4.5%), 바디 기기관리 2명(3.0%)의 순이었다. 자격증 취득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2008~2011(정기시험)은 얼굴 수기관리가 11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얼굴 기기관리 7명(25.9%), 바디 수기관리 4명(14.8%)이었다. 2012~2016(상시시험)은 얼굴 수기관리 13명(33.3%), 얼굴 기기관리 10명(25.6%), 얼굴 기본관리 7명(17.9%)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고, 따라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관리는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29.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자 특성

구분	선택	자격증취득연도		전체	x ² (Fisher) (p)
		2008~2011 (정기시험)	2012~2016 (상시시험)		
경력	6개월 미만	1 (3.7)	15 (38.5)	16 (24.2)	28.364 (0.000***)
	6~12개월 미만	0 (0.0)	5 (12.8)	5 (7.6)	
	1~2년 미만	4 (14.8)	7 (17.9)	11 (16.7)	
	2년~4년 미만	5 (18.5)	9 (23.1)	14 (21.2)	
	4년 이상	17 (63.0)	3 (7.7)	20 (30.3)	
가장 많이 적용하는 관리	얼굴 수기관리	11 (40.7)	13 (33.3)	24 (36.4)	2.700 (0.794)
	얼굴 기기관리	7 (25.9)	10 (25.6)	17 (25.8)	
	얼굴 기본관리	3 (11.1)	7 (17.9)	10 (15.2)	
	바디 수기관리	4 (14.8)	6 (15.4)	10 (15.2)	
	바디 기기관리	0 (0.0)	2 (5.1)	2 (3.0)	
	두피관리	2 (7.4)	1 (2.6)	3 (4.5)	
	Total	27 (100.0)	39 (100.0)	66 (100.0)	

***p<0.001

V. 결론 및 제언

현대 여성들의 고학력과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고 전문직에 대한 관심으로 피부관리사라는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피부관리사에 대한 관심으로 자격증 분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미용사 국가 기술자격증이 정기시험으로 확대되면서 응시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자격검정시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시험과 상시시험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증 취득 시 교육장소는 정기시험은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상시시험은 80.6%로 대부분이 미용학원에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취득연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자격증 취득 기간은 정기시험은 1~3개월이 36.1%, 상시시험이 3~6개월 28.7%로 상시시험의 경우 정기시험에 비해 소요기간이 더 길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자격증 취득 비용은 정기시험은 100~200만원이 34.4%, 50만원 미만이 32.8%이고, 정기시험은 100~200만원이 50.4%로 정기시험은 저비용, 상시시험은 고비용을 지불한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둘째, 자격증 취득 필요성 및 동기에서 취득필요성은 정기시험은 ‘매우 그렇다’가 55.7%, 상시시험은 ‘매우 그렇다’가 40.3%로, 정기시험과 상시시험 모두 자격증 필요성이 매우 있다고 나타났으며, 취득동기는 정기시험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서’가 47.5%, 상시시험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서’가

40.3%로 자격증 취득동기는 취득연도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격증 실기시험에 관한 평가는 1과목 얼굴과제, 2과목 바다관리, 2과목 림프 과목 모두 정기시험과 상시시험 모두 난이도가 적당하다고 답해 취득연도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취득 후 응답자들의 경력을 고려한 난이도가 아니라 정확한 자료라 판단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넷째, 감독관들의 평가 공정성은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취득연도에 따른 결과를 보면 정기시험의 경우 ‘공정하다’가 75.4%, 상시시험은 ‘공정하지 않다’가 60.5%로 취득연도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을 다르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공정하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기시험은 ‘감점요인의 불분명함’이 60.0%, 상시시험은 ‘감점요인의 불분명함’이 57.7%, ‘감독의 주관적심사기준’이 37.2%로,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취득연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다섯째, 실기시험장소에 따른 평가에서는 실기시험 장소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대기장소의 공간에 대해서는 모두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준비물의 양 또한 적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여섯째, 실기시험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는 5점 척도(Likert) 점수 ($M \pm SD$ -M:mean, SD:standard deviation)로 통계를 측정한 결과 1과제는 고객관리 차트는 정기시험이 4.37점, 상시시험은 3.36점으로 정기시험이 활용도가 높다고 나타났고.($p < 0.01$). 눈썹정리는 정기시험 32.2점, 상시시험 2.74점, 클렌징도 정기시험 4.85점, 상시시험 4.46점이었으며, 매뉴얼테크닉도 정기시험 4.63점, 상시시험 4.15점으로 정기시험의 점수가 더 높았다.($p < 0.05$). 딥클렌징-스크럽은 정기시험은 4.48점, 상시시험은 4.13점으로 이 또한 정기시험

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2과제는 팔,다리관리의 경우 정기시험 4.11 점, 상시시험 3.82점 정기시험의 점수가 더 높았고, 제모 역시 정기시험이 3.74점으로 상시시험 3.33점보다 높았으며, 3과제 림프는 정기시험의 경우 3.56점으로 상시시험 3.28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상시시험보다 정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시험과제의 직무능력 평가활용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연구이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 다소 한계점이 있다. 향후 추출 범위를 전국적으로 넓혀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미용사(피부)국가기술 자격증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앞으로 감독관을 대상으로 시험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미용사(피부)국가기술 자격증은 짧은 취득기간에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자들이 많다. 외국 국가 기술 자격증을 보면 단기간에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곳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용사(피부)국가기술 자격증은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된다. 특히, 시험제도가 상시로 전환된 이후 미용과 관련이 없는 응시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기도 하며, 상시시험이다 보니 응시 횟수가 많아져 기술을 습득하기도 전에 시험을 응시하려는 응시자들이 많아져서 무분별하게 시험을 응시하여 시험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기술 교육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시로 시험을 전환하여 기술시험인 만큼 기술의 습득과 이해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무분별한 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국가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었으면 한다.

또한 감독관들에 대해 가장 불만인 점은 ‘감점요인의 불분명함’이 었다. 이는 세부점수가 공개되지 않아서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과목별 세부 점수를 공개하여 수험자들의 불만은 최소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이 매주 시행되고 있는 상시에서 정시로 시험을 전환되어서 수험자들의 이해와 기술 숙련도를 높이고,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가다운 자격증으로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감승자. (2016). 이미용 국가기술자격증 효율성 연구. 경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훈. (2012). 미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 : 미용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2014).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학습과 스마트러닝의 상대적 선호도 및 학습만족도.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혜련. (2015). 피부미용사 직무부식을 위한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희영. (2010). 미용사 국가자격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연옥. (2010).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호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현숙. (2010). 피부미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윤희. (2011). 피부미용의 국가자격제도 및 업무실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연. (2017). 국내와 해외 미용직업교육 체제와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 비교 분석 : 프랑스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수향. (2011). 뷰티관련 자격증의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류학

- 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미현. (2010). 미용고등학교의 피부교과과정 실태 및 자격증에 대한 인지도,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 (2012).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의진. (2010). 한국과 독일 및 영국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허은옥. (2013). 미용사(피부)국가자격시험 지원요건 강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미숙. (2011).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제도 중 수습기간 적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미, 김은화. (2010). ‘현행피부미용국가자격제도 및 시험에 대한 피부미용사의 만족.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8권 제1호 통권 제21호. pp. 289-299.
- 이지현, 윤천성. (2010). 피부(미용)국가자격증 제도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뷰티산업연구 제4권 2호. pp. 5-27.
- 고혜정, 서희원. (2016). 한국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지원요건 강화를 위한 미용사 면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대한피부미용교육학술지 제2권 1호. pp. 13-30.
- 임은화, 황지영, 김현정. (2013). 미용사국가기술자격제도 법제화의 개선방안, Kor.J.Aesthet.Cosmetol., Vol.11 No 6, pp. 1033-1041.
- 이한웅. (2004). 피부미용사제도 입법방안에 관한 소고. 대한피부미용교육학술

지 제2권, 제1호. pp. 93-102.

박은정, 권혜진.(2012). 피부미용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한국미용예술학 회지, 제6권 제4호, pp. 245-253.

허은옥, 황완균, 정연선. (2013).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지원요건 강화를 위한 필수교육시간 연구. Kor.J.Aesthet.Cosmetol., Vol.11 No.3, pp. 547-554.

한국산업인력공단 www.q-net.or.kr

한국산업보건진흥원 www.khidi.or.kr

로앤비 www.lawnb.com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 13983호

보건복지부령 제 428조

ABSTRACT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performance test
for the national esthetician certification

KANG JUNG EUN

Skincare and Coordination Major,

Dept. of Convergence beauty,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une with constant development of cosmetic skin care industry and the need of industrial society for creation of expertise and skilled manpower,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National License of skincare specialist. Hence, the qualified license has become an essential requisite for executing duties of skincare, and the institutional system is gradually settling to recognize professional skincare specialists. As the License Test was set to be done at ordinary times (at all times) since January of 2012, many problems have occurred in executing the field work.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study intended to inquire into the acquirement of National License of beautician (skincare) and the consequent problems.

This study was oriented to women who had obtained the National License as skincare specialists of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and the survey counted on Google questionnaire survey. The analysis results based on SSPS ver20.0 after passing the processes of data coding and data clean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regard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the highest age group was in their 20s by 54.2%. As for the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s ranked the highest rate by 36.3%. As for the occupation, those who work at skincare shops registered the highest rate by 28.9%. Regarding the License acquirement, the highest rate was with those who prepared it at Beauty academies ($p < 0.001$). Regarding the acquirement period for the License, an ordinary test is longer than a regular test ($p < 0.01$). Moreover, the ordinary test required a high cost ($p < 0.001$).

Secondly, regarding the necessity of License, both in ordinary tests and regular tests, the result showed “very required”. Regarding the motive for the acquirement of the License, most of them answered that it was because “they wanted to work in a specialized post”. The degree of difficulty of practical tests turned out to be easy and simple.

Thirdly, as for the evaluation of the inspector, the result shows that ordinary tests were “fair” while regular tests were “unfair” ($p < 0.001$). They found the evaluation “unfair” because of “subjective examination standard”.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a lack of objectivity in the assessment method

because the judge takes a short course of no more than 3-5 hours offered b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Fourthly, regarding the evaluation of practical tests, test-takers were discontent with the small waiting area in terms of environment and facilities. As for time and place, the result shows that too many preparation materials were required and the result of ordinary tests was different from that of regular tests.

Fifthly, regarding improvement direction for practical tests, they were negative about additional subjects for practical tests. If something was to be added, they answered that they would opt for facial apparatus and back treatment. They said that supplementary training was necessary. As for the supplementary training, most of them chose service education and facial treatment. This made it possible to understand that this mentioned area was the most required duty while working in the field after having passed the test.

Sixthly, regarding duty competency application level, all subjects received a high score in duty competency application level and the higher duty competency application was observed in regular test applicants.

Since License test as skincare specialists does not require particular requirements and open to all comers, the reality is that the acceptance rate decreased and the quality of License is relatively underestimated. It is considered that more efforts and studies will be required for the future.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실기시험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피부미용학전공 강정은
입니다.

본 연구는 미용사(피부)국가 자격증의 발전에 관한 것으로, 미용사(피부)
국가자격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본 설문으로 수집된 자료는 학술적 연구를 위한 통계목적으로 사용되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개별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연구의 내용이나 문항항목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제언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성실히 응해 주신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피부미용학 전공

- 지도교수 : 배현숙 교수님
- 연구자 : 석사과정 강정은

연락처: 010-6287-4499 kang282@naver.com

1. 조사대상자별 일반적 특징

1. 귀하의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2. 귀하의 결혼상태는? ①미혼 ②기혼 ③재혼 ④별거 ⑤동거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고등학교졸업 ②전문대학졸업 ③대학졸업 ④대학원졸업
4. 귀하의 1달 평균 수입정도는?
①100만원 이하 ②100~200만원이하 ③200~300만원 이하
④300~400만원 이하 ⑤500만원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①피부관리 샵 ②피부과 내 에스테틱 ③스파샵 ④두피관리샵
⑤화장품 회사 ⑥학생 ⑦기타 ()
6. 귀하의 현재 거주 지역은 어디십니까? ①서울 ②경기,인천

2. 실기시험 취득에 관한 내용

1. 귀하의 자격증 취득연도는? ①2008~2011년(정기시험) ②2012~2016년(상시시험)
2. 실기 시험 장소는 ? ①서울 ②인 천 ③경기도 ④그 외 지역 ()
3. 실기 시험 장소 선택 이유는?
①원하는 날짜에 시험이어서 ②합격률이 좋다고 해서 ③모델로 가봤던 장소라서
④서울인 경우 본사라 좋을 것 같아서 ⑤지인의 추천으로 ⑥특별한 이유가 없다.
4. 귀하의 자격증 실기 교육장소는?
①고등학교 ②대학교 ③미용학원 ④직업학교 ⑤국비지원학원
⑥오프라인 수업 ⑦샵 ⑧독학으로(실기책으로 독학) ⑨기타 ()
5. 귀하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기간은 ?
①1달 이내 ②1달~3달 ③3~6달이내 ④6달이상 ⑤1년이상
6. 귀하는 미용사(피부)자격증 취득 시 사용된 비용은?
①50만원 이내 ②50~100만원 이내 ③100~200만원 이내 ④200만원 이상
7. 귀하는 미용사(피부)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다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8. 귀하는 미용사(피부)자격증 취득 동기 및 이유는?

- ①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서 ②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 ③생계수단을 위해서 ④가족이나 친구들의 권유로 ⑤유망직종이어서
- ⑥창업의 위해서 ⑦비자를 위해 ⑧관심이 있어서 ⑨대학진학을 위해 ⑩기타 ()

3. 실기 시험에 관한 평가

1. 시험시간은 적절한가? ①예 ②아니오
2. 장소(거리)는 적당한가? ①예 ②아니오
3. 준비물의 양은 적당한가? ①예 ②아니오
4. 1과제와 2과제의 쉬는 시간은 적당한가? (평균 약 15분) ①예 ②아니오
5. 1과제의 난이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①예 ②아니오
6. 2과제의 난이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①예 ②아니오
7. 3과제의 난이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①예 ②아니오
8. 귀하의 주관적인 생각에는 감독위원회에 만족하는가? ①예(9번 으로) ②아니오(8-1번 부터)

8-1. 감독관의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①감독관의 주관적 심사기준 ②감점요인의 불분명함 ③감독관의 자질
- ④감독과 수가 적어서 감독으로 판단이 힘들 ⑤모르겠다 ⑥기 타()

8-2. 감독관의 감독 태도에 불만점은 무엇인가?

- ①옆에서 시험에 방해될정도로 쳐다본다 ②신발소리가 너무 난다 ③왔다갔다해서 집중을 못하겠다
- ④멀리서만 체점한다 ⑤움직이면서 웨곤을 밀친다 ⑥불필요한 소리를 낸다 ⑦기타 ()

4. 실기 시험에 관한 평가 - 컨텐츠

* 1과제 *

9. 딥클렌징 시간은 충분했는가? ①예 ②아니오
10. 팩의(상시 10분/ 정시 15분) 시간이 충분했는가? ①예 ②아니오
11. 마스크 및 마무리에서 석고마스크의 시간이 충분했는가?
 ①예 ②아니오 ③고무마스크 출제됨 ④해당사항 없음

* 2과제 *

12. 팔다리 과정 시 중간(팔이 끝난시점) 시간체크(진행요원이) 시간이 주어졌었나?

①예(13번으로) ②아니오(12-1번으로)

12-1. 시험진행 시 시간체크를 못받아서 시험진행에 지장이 있었나?

①예 ②아니오

* 3과제 *

13. 림프(상시 15분/정시 20분) 시간이 충분했었나? ①예 ②아니오

5. 실기 시험에 관한 평가 - 환경(설비 및 시설)

14. 실내온도는 적당했는가? ①예 ②아니오

15. 대기장소의 공간이 충분했는가? ①예 ②아니오

16. 실기시험 시 다른 수험자와의 거리는 적당했는가? ①예 ②아니오

17. 베드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 있었나? ①예 ②아니오

18. 수험자의 의자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 ①예 ②아니오

19. 웨곤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 ①예 ②아니오

20. 온장고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 ①예 ②아니오

21. (2과제 제모 시)왁스의 상태는 사용하기 적당했는가? ①예 ②아니오

22. 실기시험 장소의 수험자의 인원은 적당했는가? ①예 ②아니오

23. 실기시험 장소의 시계의 위치는 적당했는가? ①예 ②아니오

6. 실기시험의 개선방향

24. 실기시험과목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①예(25번으로) ②아니오
(24-1번으로)

24-1. 추가한다면 어떤 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①얼굴기기관리 ②바디기기관리 ③등관리 ④발관리 ⑤경락 ⑥아로마테라피 ⑦두피관리
⑧기타()

25. 보수교육이 필요한가? ①예(25-1번으로) ②아니오(다음문항으로)

25-1. 필요하다면 어떤 과목이 필요한가?

①얼굴관리 ②바디관리 ③서비스교육 ④위생교육 ⑤기기관리 ⑥기타

*** 피부미용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문항 ***

7. 실기시험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 ** 제1과목 **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보통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고객관리차트					
2. 눈썹정리					
3. 클렌징					
4. 딥클렌징					
스크럽					
고마쥐					
효 소					
A.H.A					
5. 메뉴얼테크닉					
6. 팩					
7. 마스크 및 마무리					
고무마스크					
석고마스크					

실기시험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 ** 제2과목 **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보통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팔·다리관리					
팔관리					
다리관리					
2. 제 모					

실기시험과목의 직무능력 활용도 ** 제3과목 **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보통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림프관리					

9. 직업에 관한 질문

- 귀하의 경력은 얼마나 됐습니까?
 ①6개월 미만 ②6~12개월 미만 ③1년~2년 미만 ④2년~4년 미만
 ⑤4년미만
- 귀하가 가장 많이 적용하는 관리는 무엇입니까?(복수대답가능)
 ①얼굴 수기관리 ②얼굴 기기관리 ③얼굴 기본관리 ④바디 수기관리
 ⑤바디 기기관리 ⑤두피관리 ⑥약성관리 ⑥기타 ()
- 자격증만으로 고객관리가 가능한가? ①예 ②아니오

10. 근무환경 조사

-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관리실의 크기는?
 ①10평 이하 ②10평~20평이하 ③20~30평이하 ④30~40평이하
 ⑤40~50평이하 ⑥50~60평이하 ⑦60평이상
- 귀하의 근무지의 총 직원 수는 ?
 ①1명 ②2~3명 ③4~5명 ④6~7명 ⑤8~9명 ⑥10명 이상
- 귀하가 하루에 평균 관리하는 고객의 수는?
 ①1명 ②2~3명 ③4~5명 ④6~7명 ⑤8명이상
- 귀하의 출·퇴근시간의 소요되는 시간?
 ①30분 이내 ②30~50분 ③1시간 ④1시간30분 ⑤2시간 ⑥2시간 이상

12. 직업의 만족도 조사

8. 귀하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 ①6시간 미만 ②6~8시간 미만 ③8~10시간 미만 ④10시간 이상

9. 귀하는 근무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10. 귀하의 근무지에서의 복지혜택에 만족하십니까?

-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11. 귀하의 근무지에서 1달기준으로 휴일은 몇일입니까?(법정공휴일 제외)

- ①없다 ②1~2일 ③3~4일 ④5~6일 ⑤7일 이상

12. 귀하는 근무지에서 현재 1년의 중의 휴가일에 만족하는가?

-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13. 귀하는 현재 근무지의 근무환경에 만족하는가?

-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14. 귀하의 급여는 적당하고 생각하는가?

-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